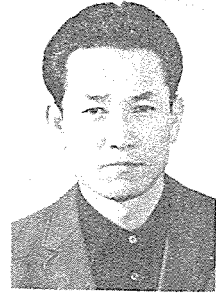


건축사편집 10개월

理事 · 편찬위원장 한 창진



지금은 욕을 먹어도 할말이 없다. 월간지로 상향이 바뀌어 졌을때 일단은 소신대로 펼쳐보기로하고 회지의 기반과 진로를 설정하는데 주력을 기우리면서 논의를 거듭해왔다는것이 편찬위원회의 그간의 발자취라고 해도 좋다.

그것은 우리 회지가 하나의 기관지이기 이전의 건축 잡지로서의 좌표나 격조를 높이기위한 파잉의욕이거나 허식에서 비롯된 소산이라고해도 또한 할 수 없다.

그것도 수긍 하면서 밝혀줘야할 일은 적어도 십여회의 편찬위원회에서 이 작은 책자만이 우리의 선회원과 협회를 이어주는 혈맥이라는 것과 어떻게면 그 대화의 길을 넓힐 수 있고 서로의 격차를 좁힐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나 하는 것을 잊은적은 없다는 사실이다.

다만 이 회지가 하나의 기관지에 불과한 기관지일 수도 없고 文學人들의 同人誌 같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완전한 전문지가 될 수도 없다 보니 그 性格의 설정이나 方向提示가 어렵고 조심스러웠다는 것은 틀림없는 고충이었고 망서림이었다.

그래서 열권을 내어놓고 여기 한번 되돌려 생각해볼 여유를 갖고져 하는거다. 이십권을 내놓게 될때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내딛에는 이만하면 할 만큼은 했다고도 생각 해 봤다.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것은 말 그대로 未完成일수도 있고 完製品이 아니라는 뜻이지만 따지고 보면 다분히 자위할 수 밖에 없을때 쓰는 말이라는것도 솔직히 되씹어 보게한다.

至당한 많은 助言과 기탄없는 忠告도 받았지만 적극 호응하고 反映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새삼스러운 변명은 아니지만 뜻한 애로도 많았다는 사실도 적어두고 싶다.

격월간의 예산으로 월간을 감행하게 된 무모도 무모지만 정리된 원고도 페이지수의 제한 때문에 주려야했고 지질도 갱지에 조판인쇄가 될뻔도 했다.

그러나 물질적인 애로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웠던 애로는 거이 완벽에 가까운 비협조와 철저히리만큼 냉담한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조용히 반문해 보고싶다.

협조는 고사하고라도 관심이나 가져보았는지.

책꽂이에 꽂기가 바뻛고 조용히 읽어보지도 못했다는 얘기도 들은적이있다.

가장 정직한 이야기일는지 모른다.

그보다도 더 놀랍고 기가막힐 애로는 불신이다.

대놓고 되먹지 않았다는 심지어 적의에 가까운 대꾸 앞에서는 어찌다 내가 질머지게된 십자가 같이 어깨에 쓰라림을 느꼈다는것.

쉴수한 이야기지만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딘가 求心点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협회의 처지, 더우기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려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사실을 인정해야 할 孤立된 처지를 눈 뜨고 보아야 하고 사실 우리는 아직 껍질도 없는 약체(弱体)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아무런 방비도 없는 自由를 앞장 세우고 延命은 할 수 있다는 安逸속에 빠져 있을게 아니라 이젠 우리 선체가 누려야할 충실히 방비된 자유와 권익을 찾기 위해 자세를 갖추어야 하고 우리 스스로가 도와나가고 뭉쳐야할 진정한 협동체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통감하며 그 선제는 어디까지나 각자의 성실과 정직과 자기 완성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하며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하지 않을까.

건축과 건축을 필요로 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지며 우리 협회의 처지와 당면문제 그리고 앞으로 뻗어갈 VISION 등.

이 회지가 협회의 求心点이 되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이 회지가 우리의 활력소의 구실을 해 줄 수 있었으면

이 회지가 협동의 길잡이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이 회지가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선해줄 수 있었으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줘야하겠다.

다 같이 참여해 줘야 한다.

충분한 예산과 충분한 협조와 충분한 뒷받침이 있을 수 있을때, 우리의 하나의 자량이 결실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기왕의 10권의 편집을 마치고 절실히 생각나는 여러가지 각박한 사정속에서도 허심탐해 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공과가 될 수 없는것 하나의 의욕적인 시도를 해본 따름이다.

다만 그속에서 흐뭇하게 여겨지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열심히 도와주신 위원들과 특히 그야말로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해준 김석철위원의 노고에 같이 그 보람을 느낀다.